

3과. 흠어지는 교회 : 건물이 아닌 지체로

하나님 마음 알기

-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ecclesia)입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 나온 군인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특별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개념이 회중, 모임에서 건물, 장소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뜻하는 ‘에클레시아’에서 공공건물이나 공식 집회장을 뜻하는 ‘바실리카(basilica)’가 되어갔습니다. 바실리카란 말은 게르만 문화에서 ‘키리카’(kirika) 그리고 훗날 독일에서 ‘키르케’(kirche)로 바뀌었고, 여기서 영어단어 ‘처치(church)’가 파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교회는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잘못된 개념에 대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고 성경이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에클레시아는 다시 ‘회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교회가 장소, 건물이 아니라 모임, 사람들이라는 점을 복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떠올리며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의 방향이 분명했음에도 지금의 많은 교회가 건물로서 자신을 규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인데, 건물에 불과한 교회 안에서는 그 다스림이 건물에만 제한되기에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 생활을 추구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신앙과 분리된 삶을 추구할 위험이 큼니다. 교회가 건물의 개념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 하나의 지체로 모인 교회, 그리고 지체의 확장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른 지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체를 은사대로 사용하시지만 결국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지체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몸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획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이고 한 몸입니다. 지체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교회주의, 교단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완전한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교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찾기

1.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에클레시아’와 ‘키르케’의 의미를 비교하며 설명해봅시다.

2.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교지로 부르셨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봅시다.

답장 뛰어넘기

1.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다른 지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혹은 다른 지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2. 교회는 분명 모여야 성립하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내가 속한 나무 또는 공동체는 흩어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기도제목